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우리는 방사능 오염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가진 푸성귀도 먹을 수가 없고, 아무 것도 안심할 수가 없어 절망적입니다.”

연전에 만난 일본 농부는 청춘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의 증언이 아니라도,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그 피해 규모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고려 때문일 것이다.

각국의 언론 보도를 보면, 후쿠시마 사태의 사고의 뒷수습은 30~40년도 더 걸린다 한다.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우리 돈으로 최소한 1경 원이 필요하다는.

애초 인류가 핵발전엔 눈을 돌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값도 싸고, 안전하

후쿠시마, 과학문명에 대한 경고

며, 전기공급도 안정적이라고 믿어서였다. 핵발전은 하나의 꿈이었던 것이다. 1954년 6월 27일, 모스크바 남서쪽 오브닌스크 시에 사상 최초의 핵발전소가 들어섰다.

그 이듬해에는 영국에 그보다 10배 규모(50메가와트)의 상업용 핵발전소도 문을 열었다. 이로써 인류역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 듯했으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핵발전소는 건설 비용이 비싸다. 반감기가 긴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문제는 해답이 없다.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이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핵발전소는 불의의 초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1986년 구 소련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사고는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상당수 나라에서는 핵발전소를 혐오시설로 취급한다. 미국 정부가 핵발전소에 대한 건설 보조금을 지급 중단한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영국은 핵발전소에 대한 특별세의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이대로 가면 20년 안에 세계 각국의 핵발전소 가운데 30%정도는 저절로 폐쇄될 것이다.

이런 판국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또 한 번 대형사고가 터졌다. 유럽의 시민사회에서는 핵발전에 대한 비

판이 더욱 거세졌다. 독일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격렬했다. 25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핵발전 반대시위를 벌였다.

그 달 실시된 독일의 주의회 선거에서는 녹색당이 대승을 거뒀다. 녹색당은 독일 경제의 선두주자인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집권당으로까지 등장했다. 그들은 벤츠와 포르세로 대표되는 세계 굴지의 자동차산업지대를 녹색산업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기업을 도했다.

당시 독일연방의 집권당이던 기민당도 에너지 전환을 국정사업으로 결정했다. 2050년까지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유럽시민들은 에너지와 환경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는 요구를 쏟아냈고, 독일에서는 정책 전환까지 구현되었던 것이다.

일본에도 일찍부터 한 선각자가 있었다. 다카기 진자부로(高木仁三郎)라는 ‘시민과학자’가 그 사람이다. 그는 대학에서 핵화학을 전공하였으나, 평생을 반핵운동에 바쳐왔다. 처음에는 그도 핵발전을 미래 에너지산업의 총아라 확신하였으나, 산업현장에서 핵문제의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핵발전 시설에서는 방사능 유출이 불가피했는데, 회사는 그 사실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다카기는 방사능 찌꺼기가 ‘죽음의 재’이며, 핵이란 인간이 꿀 수 없는 재앙의 불이라 확신했다.

실사 가동을 멈추더라도 핵발전소에서 타고 남은 플루토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데는 2만4000년이나 걸리기 때문이었다. 그의 말대로 핵은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지만 끄고 싶을 때 끌 수 없는 뽕찌꺼리 기술”이 틀림없다.

본래 핵은 ‘하늘의 불’이었다. 지구의 탄생도 그렇지만,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별빛은 핵융합의 결과다. 최초 지구 문명을 뒤덮은 방사성 물질의 독성이 사라질 때까지 수십억 년이 걸렸다. 그런 다음에야 지구상에 생명체가 모습을 나타냈다.

현대인들은 핵의 이러한 맹독성을 망각한 채, 함부로 핵발전소의 스위치를 켜고 있다. 인간의 오만을 드러낸 총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다카기의 경고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일본인들은 귀를 틀어막았다.

후쿠시마의 재앙은 현대 과학문명의 위기를 상징한다. 대안이 어디 있는냐고 묻지만 말라. 핵발전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이들의 미래가 어둡다.

社說

지방선거 경선 오락가락, 혼탁 부추겼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전남 기초 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원칙이 없고, 일부 지역은 뒤집기 행보를 보여 선거판이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지역마다 원칙이 다르고, 전략공천을 했다가 반복하면서 과열양상만 부추킨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무원칙에 반발해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 선언한 후보들도 속출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지난 11일 전남도당 집행위원회를 통과했던 42명의 후보 중 9명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2명은 경선에 불참하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여수와 화순은 전략공천을 했다가 갑자기 경선으로 바꿔 해프닝을 낳기도 했다.

특히 구 민주계와 안철수계가 ‘계파 쟁기’ 경쟁을 벌이면서 개혁공천이 실종되고, 창당시 모토로 내세운 ‘새정치’는 찾기가 어렵게 됐다. 일부 후보들은 경선에서 선출되기 위해 무리하게 조직을 동원하는 사례가 많아 선거법 위반도 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13일 현재 광주에서는 98건의 선거법 위반이 적발됐고, 이중 12건은 검찰 등에 고발됐다. 전남에서도 286건 적발돼 26건이 고발 조치됐다. 선거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정도이니 얼마나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과 함께 격정되는 것은 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새정치연합 내 공천 잡음이 커지면서 지역민들의 정치 열정과 냉소주의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곧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자치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과열·불법선거를 제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역민들의 선택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새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혼란의 책임을 겸허하게 새겨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5·18 전국화 위해 ‘오월 민주학교’ 확대를

5·18 민주화운동 34주년을 맞아 서울·경기·부산·경북지역 일부 학교에 ‘오월 민주학교’가 운영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대상 학교와 학급 수는 많지 않지만 5·18 교육이 호남을 넘어 타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전남민주화운동총회와 함께 이달부터 다음달 18일까지 5·18민주화운동과 오월정신 계승을 위한 ‘오월 민주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광주·전남 31개 학교를 포함해 서울 광성중, 경기 능서초, 경북 피천초, 부산 동평중·간곡중, 전북 금평초 등 전국 7개 시도 초·중학교 37개교 166개 학급이 참여한다.

호남권을 제외하면 5개 학교, 6개 학급에 불과하지만 5·18 교육이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타지역 학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시청각 교육과 놀이학습, 토론 및 역할극 등을 통한 5·18민주화

운동 바로 알기, 구술 증언을 통한 5·18 간접 체험 등으로 다양하게 짜였다.

‘오월 민주학교’ 운영은 5·18에 대한 왜곡과 폄하가 횡행하는 시기에 교육을 바탕으로 5·18 전국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18의 전국화는 30년이 넘도록 광주 지역의원이자 숙제였지만 정부의 의면 속에 진전을 보지 못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둘러싼 끝없는 갈등이 이를 말해준다.

5·18은 역설적이게도 ‘세계화’에는 성공했지만 ‘전국화’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국화를 위해서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5·18을 바르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이 오월정신을 이어받아 정의·평화·인권권을 실현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교육 대상 학교를 더욱 확대하는 데 힘을 모아 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정관수술 두려워할 필요 없다



변동원 트루맨 남성의원 비뇨기과 원장

도 있다.

8~90년대까지는 국가적 산아제한 정책으로 비뇨기와 병의원 이외에도 가족 계획협회등 다양한 기관에서 피임 수술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뤄졌었고, 예비군 훈련 면제 조건을 대신 하는 등으로 유도돼 심지어는 무료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출산 장려 정책으로 피임을 위한 정관 수술은 의료 보험이 적용되던 수술에서 7~8년 전부터 비보험 수술로 분류돼 시행되고 있다.

피임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영구적인 방법으로는 여성의 난관 결찰술과 함께 남성의 정관수술(결찰수술)이 대표적이다.

가끔 정관수술을 하지 않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부인이 대신 수술했다고 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남성의 수술에 비해 여성 피임수술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우며, 여성 건강에 비취했을 때 그리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다.

정관수술은 국소 마취로 10~15분 정

도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으며, 수술후 바로 일상 생활이 가능하며 여성의 수술에 비해 경제적이고 간편한 방법이다. 부부가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장 경제적이고 간편한 피임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요 예민한 부위의 국소 마취에 대한 두려움과 칼을 댄다는 우려로 겁이 많은 남성들은 쉽게 병원 문턱을 넘어 오지 못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음낭 피부를 수술칼로 절개하는 대신에 특별히 고안된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2~3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내고 정관을 바로 분리해 낸 다음, 정관을 자르고 묶는 무도(無刀)정관 수술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피부 절개장이 없기 때문에 피부 붓음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실험적 거의 필요성도 없어 1회 방문으로 편리하게 할 수가 있다.

통증 때문에 망설여지는 분들은 수면 위내시경을 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수면 마취로 유도해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간혹 묻는 질문 중에 수술후에 정액량이 감소되지 않는 지를 물어 보는 분들이 있는데, 수술로서 차 단되는 정액에서 정자의 비중은 1% 미만이며 정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립선액(30%)과 정낭액(70%)은 차단되지 않으므로 정액량이 줄어들어 사정이 잘 되지 않음과 걱정되는 우려는 없다고 볼 수가 있다. 사정시의 오르가즘도 변화가 없으며 고향에서 생성되는 남성호르몬은 정자의 통로인 정관이 아닌 혈관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므로 수술 후 정력이 감퇴된다는 속설도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

피임 효과는 수술 후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2번 정도의 사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정액에서 정자가 관찰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는 이미 정관을 거쳐 전립선과 정낭에 머무르고 있는 정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술 후 2~3개월 후 정액검사를 해 무정자를 확인 후 비로소 자연피임을 할 수 있겠다.

기고

주식회사 대표님, 자본금은 안녕한가요?



이명진 신용보증기금 광주지점장

들이 언제 시한폭탄처럼 터져 또 다른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재앙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취직해 그동안 수많은 기업들의 신용을 평가하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온 한가지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자한다. 최근 그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그 회사의 거래처와 금융기관이 큰 손실을 입었으나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지않아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차체에 우리사회에 깊이 뿌린 내린 나쁜 관행들이 굴어터지기전 우리 스스로 하나하나 개선해가는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으면하는 바램이다.

우리의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형태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주식이라는 소액자본으로 분할하여 주주의 유한

책임하에 거대자본을 조달함으로써 산업화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리하여 어떤 주식회사는 글로벌기업으로 한 국가의 자산보다 거대하며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대단하다.

여기서 문제를 삼고자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 상법상 자본금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10원을 가지고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본금에 대한 규모가 아니라 확정, 유지, 감소제한이라는 자본금의 세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을 아주 잘못된 관행으로 처리하여 설립시부터 자본금을 하나의 형식적인 숫자로 만들어 버린다. 설립시와 증자시에 재무비용 특히 부채비용 개선을 위해 외부에서 차입된 자본금은 증명서 발급후 인출되어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은

상실한다. 특히 면허유지를 위해 일정한 금액이상의 자본금을 등기해야하거나 관공사 수주에 입찰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을 양호하게하려는 건설업체들은 아주 흔한 관행으로 알고 있다. 전혀 죄의식도 없으며 당연시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관행이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표이사님! 우리회사의 자본금은 안녕한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십시오.

면허유지를 위해서나 관공수주를 위해 또 좋은 신용등급으로 신용대출을 받기위해 자본금의 3대 원칙을 지키지도 않으며 죄의식도 없으며 당연시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관행이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표이사님! 우리회사의 자본금은 안녕한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십시오.

각종 긴급전화번호 통합 논의 필요하다

최근 수백명의 인명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린 세월호 침몰 사고로 가족의 고통은 물론, 전 국민의 슬픔을 넘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시점에 한가지를 제안코자 한다.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해당 부서와의 공조를 위해 긴급전화에 대한 통합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점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이 119뿐

만 아니라 112에도 구조요청 전화를 했다고 한다. 사고 당시 119에 23건, 112에 4건, 122에 6건의 구조요청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세월호 침몰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단원고 학생도 처음에 119로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과연 122가 해상 구조를 신고하고 신고(122), 밀수 신고(125), 마약사범 신고(127) 등이 이에 속

대부분은 122 번호를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익숙한 112와 119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현재 긴급전화는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이다. 대표적 긴급전화로는 국가안보 신고(111), 범죄 신고(112), 간접 신고(113), 사이버테러 신고(118), 화재 조난 신고(119), 해양사고 신고(122), 밀수 신고(125), 마약사범 신고(127) 등이 이에 속

한다. 하지만 긴급전화는 이원화, 다양화 돼 있어 긴급상황 발생시 인지도가 낮은 긴급전화는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112, 119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항상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수많은 대책을 쏟아낸다. 이번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실에 맞는 매뉴얼 개발 및 현장 대응 능력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다. 그 첫단추가 긴급전화번호 통합 논의가 되어야 할 때이다. ▲김도연·영암군 영암읍

無等鼓

호(號)는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지는 이름이다. 대부분 거처하는 곳이나 자신이 지향하는 뜻, 존경하는 선배의 호나 좋아하는 물건에서 따온 경우가 많았다. 퇴계(退溪)·율곡(栗谷) 등은 자신이 학문을 배우고 가르친 곳을 호로 삼은 경우다.

공초(空超) 오상순은 하루 2백 개의 담배를 피우대는 애연가였기에 ‘공초’나 ‘골초’와 발음이 비슷한 호를 택했다. 염상섭의 횡보(橫步)는 언제나 해를 끼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해경의 호 이상(李箱)은 공사현장에서 동료 인부가 성을 잘못 알고 ‘리상(李氏)이라 부른 데에서 비롯되었다 한다. 육사(陸史)란 호를 가진 이황은 감옥에 있을 때 죄수 번호가 64번이었다.

‘북쪽엔 소월 남쪽엔 목월’이란 찬사를 들었던 박영종은 스스로 필명을 목월(木月)로 지었다. 그가 좋아했던 수 두 변영로의 호에서 ‘수(樹) 자에 포함 된 ‘목’(木)과 김정식의 호 소월(素月)에서 ‘월’(月)을 따 지은 것이다. 경기도 부천 출신인 변영로는 부천의 옛 행정 명칭인 수주(樹州)에서 호를 따왔다.

천재 화가 김홍도는 단원(檀園)이라는 호를 30대 중반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명나라 화가 이유방의 호에서 따온 것이다. 김홍도가 스승으로부터 그림과 글씨를 배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 안산시이다. 안산시에 단원구(檀園區)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많은 학생이 희생된 단원고도 바로 그곳에 있다.

노동자 출신 시인 박노해(57)의 본명은 박기평이다. 그의 호 ‘노해’는 ‘노동술’에 취해 게걸음을 한다 해서 동료가 붙여준 호다.

호(號) 이야기

김해경의 호 이상(李箱)은 공사현장에서 동료 인부가 성을 잘못 알고 ‘리상(李氏)이라 부른 데에서 비롯되었다 한다. 육사(陸史)란 호를 가진 이황은 감옥에 있을 때 죄수 번호가 64번이었다.

‘북쪽엔 소월 남쪽엔 목월’이란 찬사를 들었던 박영종은 스스로 필명을 목월(木月)로 지었다. 그가 좋아했던 수 두 변영로의 호에서 ‘수(樹) 자에 포함 된 ‘목’(木)과 김정식의 호 소월(素月)에서 ‘월’(月)을 따 지은 것이다. 경기도 부천 출신인 변영로는 부천의 옛 행정 명칭인 수주(樹州)에서 호를 따왔다.

은 차마 못했네’가 또 심금을 울린다. “사랑은 했는데/ 이별은 못했네// 사랑할 줄을 알았는데/ 내 사랑 잘 가라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참 이별은 못했네// 이별도 못한 내 사랑/ 지금 어디를 떠돌고있는지/ 길을 잃고 우는 미야 별처럼/ 어느 허공에 깜박이고 있는지// ... // 우다가도 있다가도/ 홀로 고요한 시간이면/ 스치듯 가슴을 베고 살아내/ 가여운 내 사랑// 시란 별로 내 안에 떠도는/ 이별 없는 내 사랑/ 안녕 없는 내 사랑” /이홍재 논설교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광고문의 062-227-9600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